

2023. 9. 25.(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2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02-2133-2260

노선팀장

박흥식

02-2133-2281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담당자

노리라

02-2133-2283

서울동행버스 '출범 한 달 이용객 5천명 돌파...추가 노선 확대에 2차 출발

- 시 최초 수도권 직접 투입한 서울동행버스, 1개월 이용객수 5천명·첫날 대비 2배↑
- 오세훈 시장,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 거듭 강조...교통소외지역 아우르며 공감·깊은 정책
- 주민의견 적극 반영해 맞춤형 노선 완성, 광역버스 입석불편 해소·김포골드라인 대체 효과
- 2차로 4개 노선 추가 확대 추진<파주·고양·양주·경기도>, 수도권 교통 편의 대폭 확충

- 수도권 주민까지 따뜻하게 보살피는 공감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지속적인 이용객수 증가 추세를 보이며 수도권 교통 정책의 새로운 혁신안이 되고 있다.
-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월)부터 선보인 ‘서울동행버스’의 운행 개시 이후 1개월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철학에 맞춰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수도권 주민까지 아우르는 공감정책으로 주목받으며, 운행 한달간 5,341명의 수도권 주민이 이용하였다.
- 서울동행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출근버스로써, 화성시 동탄(서울01번)과 김포시 풍무동(서울02번)에 첫 번째 운행을 시작하였다.

- 이에 더해 이용객 추이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시범 운영으로 화성 동탄, 김포 풍무 지역 2개 노선을 운행한 결과, 첫날 대비 이용객수가 2배 이상 향상되는 등 운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 서울동행버스 이용 승객수는 매주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운행개시 이후 한달이 지난 현재 첫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서울01번은 광역버스 3대가 3회 운행하고, 서울02번은 간선버스 6대가 12회 운행하고 있으며, 서울01번은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승객수가 많지 않으나, 서울02번은 간선버스로써 서울01번에 비해 누적 승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행버스 이용객 현황 (2개노선, 8. 21 ~ 9. 22)>

구 분	누 계	8.21~ 8.25	8.28~ 9.1	9.4~ 9.8	9.11~ 9.15	9.18~ 9.22
전체	5,341	701	931	1,105	1,246	1,358
서울01 (화성시 동탄)	803	123	135	146	197	202
서울02 (김포시 풍무동)	4,538	578	796	959	1,049	1,156



<지역주민 의견 반영해 정류소 추가 등 적극행정·광역버스 입석·김포골드라인 교통불편 해소>

- 단기간 내 승객수요가 증가한 데에는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운행 특성과 지역 맞춤형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동행버스’ 특성에 걸맞게 정류소 추가, 효과적인 운행구간 적용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며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 서울시의 일반버스는 안전속도 5030에 따라 운행속도가 50km/h로 제한되지만, 서울02번은 김포대로와 개화동로의 제한속도 70km/h를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상향시켜 이용자의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였다.
 - 또한, 응답소 등을 통한 서울동행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01번은 정류소 3개, 서울02번은 정류소 1개를 추가 정착토록 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 세부적인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파트 밀집 등 신도시에 따른 다양한 이용 특성과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먼저 서울01번은 일평균 32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첫 번째 정류장인 ‘한신더휴’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했다.
 - 이는 서울01번의 첫 번째 정류장을 경기도 광역버스와 차별화하여 중간지점으로 선택하며, 입석금지에 따른 승차불편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경부고속도로 진입 전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동원,다원중’ 정류장과 광역급행버스가 정착하지 않는 ‘베라체아파트’ 정류장 등을 추가하여 입석금지에 따른 승차 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서울01번은 강남대로 정체 해소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기존 경부간선도로 반포IC에서 강남대로로 진입하던 경로를 반대방향으로 운행토록 하였으며, 양재역까지는 평균 69분 소요, 강남역까지는 평균 77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02번은 일평균 182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5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인접한 ‘풍무푸르지오,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정류장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였다.
- 기존에는 김포시 풍무동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하여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나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환승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서울02번 운행으로 환승횟수가 단축되었으며, 김포시에서 조사한 결과에도 이용객의 만족도가 82%를 나타내고 있다.
- 또한, 서울02번은 김포시 풍무동에서 김포공항역까지 평균 30분이 소요되며, 기존의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여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김포골드라인을 대체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김포골드라인 풍무역~김포공항역까지 소요시간은 12분이지만, 풍무동 아파트 단지에서 버스 또는 도보로 이용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총 이동 시간은 30분 내외로 소요된다.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 향상 효과·신규 수요처 발굴해 4개 노선 2차로 추가 확대 추진〉

- 대표적인 대중교통 기반시설 부족 지역으로 손꼽히는 두 지역에서 개선 효과가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 시는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서울동행버스의 탄생 배경이 수도권 주민들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을 우선적으로 청취한 데에서 시작된 만큼, 민선 8기 시정 철학인 ‘동행’과 ‘창의행정’을 적용한 교통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첫 번째 서울동행버스 출발 이후에도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파주시 운정지구, 고양시 원흥지구, 양주시 옥정신도시, 광주시 능평동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서울동행버스가 2차로 찾아갈 예정이다.
- 경기도 및 각 기초지자체와 협의하여 정차 정류소, 운행시간 등 세부 운행계획을 확정하고 11월 중에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 새로운 서울동행버스 선정기준은 서울동행버스 운영원칙에 따라 광역버스 입석 제한이나 대중교통 수단 부재로 ①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②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 균형있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③권역별로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하였다.
-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기도 및 각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동행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높은 교통정책 이해도를 바탕으로 교통 혼잡 상황, 탑승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의적인 노선을 제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수도권 출근길을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좁지만 깊이 있는 정책, 수도권 주민들의 삶에 작은 울림을 선사하는 성공적인 정책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교통정책 노하우를 모두 집약해 수도권까지 아우르는 적극적인 교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